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 시간이 개별 종교 전통을 다루는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기념으로 이번 시간에는

힌두교,  
'의례와 명상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도의 종교 전통인  
힌두교를 다뤄볼까 합니다.

힌두교는 영어로 **Hinduism**  
(힌두이즘)이라고 표현됩니다.

힌두이즘은 무슨 뜻이나 하면

'힌두'라는 말 자체가  
'인더스강'이라는 애기고요.

힌두이즘은 유럽 사람들이 볼 때  
인더스강 저쪽 편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전통들을  
힌두이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시다만  
사실 'ism'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특히 내부, 그 종교 전통의  
내부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종교 전통 혹은 그 맥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실체를 만나게 됐을 경우에  
자기네들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  
필요가 있게 되고

그 이름 붙일 때 예를 들어서

타이오즘이나 부디즘이나 컨퓨셔니즘  
혹은 힌두이즘처럼

특정한 특징들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ism'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종교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타자가  
또 다른 타자에 대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편의성이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한계,  
정확히 그 개념이 그 대상

존재하고 있는 실체를  
포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죠.

여하튼 힌두이즘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인더스강 건너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단히 강력한

유신론적인 종교 전통들을 통칭해서  
힌두이즘이라고 부릅니다.

힌두이즘은, 힌두교는 다양한 신들,  
다신론적인 특성들로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신론이라고 표현해서  
이 다신론이라는 게

서구 기독교와 같은 유일신론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잘 살펴보면 소위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궁극적 실체인 신과

아트만이라고 하는  
인간 내재 속에 들어 있는 영혼의 측면

그래서 저희가 아트만이  
브라흐만이라고 해서

세계사 시간에 인도종교에 대해서 보면  
'범아일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 실체인 신, 브라흐만 신이

어떤 식으로 인간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는가에 관해서는

마치 그리스 로마의 올림포스  
열두 신 못지않게

참으로 다양한 측면의 다양한 신들이  
얘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종교의 근원  
혹은 기원 얘기를 할 때

인간들이 접하게 되는  
자연의 거대한 힘들을 의인화시켜서

신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힌두교에서도 예컨대  
불을 의인화해서 아그니 신이라든지

공중, 하늘을 의인화해서  
인드라 신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다양한 신 개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원숭이 신처럼  
특정한 측면들을 포착해서

그것들을 신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뒤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힌두교를 정의하면서

'명상과 의례'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얘기했는데요.

의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인간들이 자신 삶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 대해서

예컨대 제를 지내거나 하늘과  
적절한 방식의 관계를 맺는 것들을

소위 우리가 제사 혹은 의례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의례들이 힌두교 전통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 발전된 것들을 맡았던 게  
저희가 인도하면 항상 4계급,

브라만 계급부터 시작해서  
불가촉천민에 이르는

4계층의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높은 계층 브라만 계급이

소위 말해서 의례를 담당하고 있는  
종교적 권위를 소유한

사제계급이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저희가 힌두교 전통,  
인도 종교 전통들을 얘기하면

빼놓지 않고 얘기해야 될  
중요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것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이게 베단타 전통이라고 부르는데요.

베단타라고 하는 것은  
<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브라만 계층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의례, 복잡한 의례들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베다>라고 하는 경전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 혹은 뒤, 말기 무렵에 적힌  
경전이라고 해서

베단타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이 베단타가 소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파니샤드라고 불리는데

이 우파니샤드의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라흐만,

브라흐마 초월적인 궁극적 실체인 신이  
아트만과 하나라고 하는

'범아일여' 사상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이 안에 업이라든지  
윤회라든지 혹은 목샤라고 부르는

지상에서 인간들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지 않게 만드는

해탈 사상에 이르는 다양한 사상들이

가장 잘 표현돼 있는 게  
<우파니샤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힌두교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파니샤드>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파니샤드> 못지않게  
힌두교 종교 전통들의 특징들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책이  
<바가바드기타>라고 하는 책입니다.

특히 <바가바드기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힌두교가 다신론적인  
종교 전통처럼 비치지만

궁극적 실체인 브라흐마가  
여러 가지 모습들로

포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조주로서의 신은  
'브라흐마'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또 이 창조된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신은  
'비슈누'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창조된 세계를  
어느 시점에선가 다시 무(無)로 되돌리는

파괴의 측면을 얘기할 때는  
'시바'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다양한 측면들,  
이 궁극적 실체인 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바가바드기타>에  
아주 잘 표현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그 유일신론

혹은 다신론적인 종교 전통들의  
특징들을 아주 복잡한 형식으로

다 포착하고 있어서  
실제로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 전통이

매우 다양한 신화  
그다음에 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양한 신에 대한

의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힌두교 하면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애기 중의 하나가  
'아바타'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 <아바타>가 유명했습니다만

아바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할 수 있는 애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가바드기타> 안에도  
그런 애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 아바타라는 사상이  
힌두교의 다차원성 혹은 다층성들을

이해하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목동이 된  
크리슈나의 애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신이  
소위 붓다라든지 혹은 보살이라든지

혹은 성인 혹은 구루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힌두교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교 혹은 기독교 종교 전통들도

자기네 종교의 내러티브나 교리체계로  
대단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예수 애기를 하면  
예수가 신의 아들로써

신의 가르침들을 전했다고 하면

힌두교 입장에서는 보면  
많은 아바타 중에

예수도 아바타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게 기독교적  
교리관점이라는 측면에서는

쉽사리 용납될 수 없는 얘기겠지만

적어도 힌두교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 종교 전통의 이질성들을

자신의 종교 전통으로 흡수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현대 들어서 힌두이즘은 특히나

'요가'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크리슈나 요가난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즈니쉬라든지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인도종교의 성인, '구루'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서구 사회로 많이 전파가 되면서

소위 서구 기독교라든지  
서구의 전통적인 종교 전통에서

충족되지 않는 종교성과 영성을

동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맥락에서  
충족시키려고 할 때

실제로 힌두교가 대단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비틀스 같은 사람들

비틀스 그룹의 멤버들이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한테

'아쉬란'이라고 표현하는 성지로

소위 말해서 영적인 여정을  
떠나는 것 같은 사례들이

70~80년대 미국이라든지 인도

전 세계적인 종교지형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인도종교를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요가라는 것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푸자'라고 하는 자신의 집에  
여러 가지 다신론적인 신의 모습들,

신의 형상들을 모셔놓고  
이 신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원을 하는 것을  
저희가 푸자라고 부르는데요.

'신에게 꽃을 바치다'라는 의미인데

푸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가'라고 하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신과 인간  
그러니까 브라흐만과 아트만을

'다시 재결합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 것이고

그다음에 요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신과 인간을 결합시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컨대  
박티 요가라는 게 있고요.

즈나나 요가, 쿤달리니 요가,  
탄트라 요가처럼

이 요가 앞에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여러 가지 신과 인간을

재결합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컨대 '박티' 요가 같으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헌신'이라고 얘기될 수 있겠는데요.

신에 대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발휘하게 되면

그것을 매개로 삼아서  
인간과 신이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는

소위 박티 요가를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즈나나'라고 하는 말은  
'지혜'거든요.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혹은 학습을 통해서

사색과 탐구를 통해서  
인간의 무지함을 깨우치고

근원적인 신성이 자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카르마 요가처럼  
행동을 통해서 남들을 돕고

세상들에 대해서 선업을 쌓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신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체계화시키고 있는 것이

힌두교 전통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만한 것은  
불교가 인도에서 비롯됐지만

어쨌든 현대의 종교지형,  
인도 종교지형에서는

불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인도에서는 큰 의미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슬람이 저 근동에서  
출발해서 인도까지 왔지만

한때 또 이슬람과  
힌두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은 관계를 맺기도 했지만  
정치적 갈등 같은 것들에 휩싸여서

예컨대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인도하고 독립했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 힌두이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인더스강 건너편  
즉 인도 전역에 퍼져있는

유신론적인 종교 전통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고

그 특징으로는 다양한 신의 모습들,  
아바타라고 말씀드렸지만

신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현현될 수 있고 표현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힌두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으로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고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세계적인 종교보다도

대단히 독특한 방식으로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종교 전통에 관한  
얘기를 마치고요

그다음은 전체 강연의 마지막 파트로

현대사회에서 소위 종교성,  
영성의 문제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를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